

### '포엠 콘서트' 올해 첫 무대

31일 광주영상예술센터... 김선우 詩 노래



'시를 노래하는 달팽이'들이 주최하는 '포엠 콘서트'의 2007년 첫 무대가 31일 오후 7시 광주영상예술센터(옛 KBS광주방송총국) 영상관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의 주인공은 시인 김선우(37·사진)씨. 지난 1996년 '창작과 비평' 겨울호에 '대관령 옛길' 등 10여편의 시를 발표하면서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2004년 '피어라 석유!'로 제 4회 현대문학상을 수상한 김 씨는 시집 '도화 아래 잠들다' 산문집 '내 입에 들어온 설탕같은 키스들'이 있다.

박양희씨의 사회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임웅·김근영·김영준씨 등 젊은 작곡가들이 시인의 작품에 곡을 부친 '봄날 오후' '물로 빚어진 사람' 등이 선보인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푸른연극마을'이 무대에 올리는 '머슴새'.

## 빛고을 연극 큰잔치

광주연극제 내달 4일부터 8일까지... '얼·아리' 등 5개팀 경연

제21회 광주연극제가 다음달 4일부터 8일까지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경연에 참여하는 단체는 극단 '얼·아리' 등 모두 5개팀으로 예년과 달리 비경연작은 없고 최근 들어 가장 많은 극단이 참여, 경쟁을 벌인다.

최우수상 수상팀은 오는 5월 경남 거제시에서 열리는 제 24회 전국연극제 본선 대회에 광주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여우 누이'(4일)=창작극을 주로 무대에 올리는 극단 얼·아리의 작품. 동명의 동화를 바탕으로 양태훈씨가 대본을 쓰고 연출을 맡았다.

다양한 동요가 삽입되는 등 어른들을 위한 우화로 개작됐으며 가족간의 문제를 통해 들여다 본 인간의 탐욕에 대해 다루고 있다.

호탕한 아버지와 모성에 강한 어머니, 정신 장애를 앓고 있는 언니, 그리고 여우골에서 주위 온 끝연이로 이루어진 여우 사냥꾼 가족이 이야기를 끌여간다.

김경숙, 유미, 표정화, 박선영, 정태석씨 등이 출연한다.

▲'머슴새'(5일)=푸른연극마을이 작품으로 오성완씨가 희곡과 연출을 맡았다.

연극작품을 무대에 올리기 위해 고뇌하는 배우들의 모습과 그들이 무대에 올리는 '작품'이 극중극 형식으로 삽입된다.

배우들은 보성의 머슴 출신 의병인 안규홍의 삶을 무대에 올리는 작업을 하면서 예술이란 무엇인가, 현실과 이상은 어떻게 만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

"왜 연극을 하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질문을 제기하는 서사극으로 이담규, 박영진, 김명대씨 등 16명이 출연하는 대규모 작품이다.

▲'웃어라 무덤아'(6일)=고연옥 작 김하정 연출로 진달래 피네의 참가작이다.

시간의 흐름을 벗어난 다양한 전개 방식이 특징인 작품으로 마치 추리영화를 보는 듯한 연극이다.

강욱자 할머니는 장례비용 100만원을 허리춤에 차고 다니며 이웃들에게 자신이 죽으면 장례를 치러 달라고 부탁한다. 그러던 어느날 할머니는 살해된 채 발견되는데... 심은경, 강용복, 최현진씨 등이 출연한다.

▲'박무근 일가'(7일)=올해 연극제에 처음 참가하는 극단 DIC의 작품으로 이대영씨가 희곡을, 심성일씨가 연출을 맡았다.

현대사회 가족에 대한 그림을 그려나가는 이 작품은 함께 생활하면서도 서로가 남남일 수밖에 없는 가족의 모습에 메스를 들이대고 있다.

시아버지 살해 혐의로 법정에서 선 이순임은 자살한 남편이 시아버지를 죽였다고 주장한다. 작품은 이순임의 회상을 따라 실직 사실을 8개월간 숨긴 소심한 가장 박무근과 아들·딸들의 모습을 하나둘씩 펼쳐보인다.

정순기, 윤미란, 유영준, 노희설씨 등이 출연한다.

▲'피고 지고 피고 지고'(8일)=극단 청춘의 참여작으로 '그것은 목탁 구멍 속의 어둠이었습니다' 등을 집필한 이만희씨의 작품이다. 연출은 이형원씨.

나이 칠십을 바라보는 왕오, 천축, 국전은 젊은 시절 도박과 사기 등 각종 범죄로 한가라했던 전과자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노인들은 어느날 화원을 운영하는 해초야사로부터 군부대 지하에 보물이 묻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일 글을 파면서 일확천금을 꿈꾼다. 김상오·이기인·오설균·고년영씨가 함께 호흡을 맞춘다. 문의 062-523-729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설렘 '봄봄의 수다'展

오늘부터 4월12일까지 광주롯데회관

봄은 설렘과 기대, 희망이 교차하는 계절이다. 대학을 갓 졸업한 예비 작가들에게도 봄은 또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황희영 작 '봄의 왈츠'

광주 롯데회관이 곳곳에 열정을 가진 예비 여류작가들이 스케치한 봄 작품들을 모아 '봄봄의 수다'전을 연다. 30일부터 4월12일까지.

작가들은 이번 전시에서 설치, 회화, 도자기 등 다양한 작업을 통해 봄의 풍성하고 다채로운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작가들은 '봄의 수다'라는 전시주제에 맞춰 공동작품도 선보인다. 문의 062-221-1808.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예향 광주 '무진주문화마당'

오늘 광천동 U·Square 앞 광장

지난해 광주 지하철 역사에서 열린 '무진주문화마당'의 올해 첫 공연이 30일 오후 3시 광주시 서구 광천동 U·Square(옛 종합버스터미널) 앞 광장에서 열린다.

이날 공연에서는 이진안, 김경숙, 김수현 시인의 시 낭송에 이어 타악 전문그룹 '일쭉'가 출연, 흥겨운 풍물 공연을 펼친다. 또한 가수 김동훈, 무용인 김성희, 국악인 장경숙씨 등이 참가해 다양한 공연을 선보인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의재 창작스튜디오 국제워크숍 30일까지 문화도시 홍보관 일대

## 아시아 예술의 새로운 모색

국내 공공 미술프로젝트 사례 소개

일본·말레이시아·태국 작가 등 참여

아시아 문화예술인들의 교류와 예술창작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국제워크숍과 전시회가 지난 28일부터 열리고 있다.

이번 행사는 광주 의재 창작스튜디오 주최로 30일까지 광주 동구 문화중심도시 홍보관 일대에서 계속된다.

30일 오후 2시 '아시아 동시대 예술의 새로운 관계 모색'을 주제로 열리는 워크숍에서는 경기 안양시의 '스톤 앤 워터'와 인천 '스페이스 빔', 광주 '중흥동 프로젝트' 등 국내 공공 미술프로젝트 사례 등이 소개된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인천 '스페이스 빔'의 담당자인 민문기씨와 태국의 비영리 예술공간인 타두 갤러리의 아피삭 손저드씨는 공공미술을 주제로 발제, 토론한다.

이에 앞서 28~29일에는 일본 도쿄 외곽인 토리데에서 개최된 '토리데 아트 프로젝트(TAP)'를 주도한 와타나베 요시야키 도쿄 예술대 교수와 말레이시아 엔젤라 히자스 등이 참가, 예술인 레지던시(거주) 프로그램, 공공미술 프로젝트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와함께 행사기간동안 옛 전남도청 2, 3층에서는 해외 작가들의 작품과 공공미술 행사를 소개하는 영상물 상영, 인쇄물 자료 전시도 열려 시민들의 관심을 모았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아시아 지역 미술교류 워크숍과 함께 열리는 전시회에서 공공미술 사례로 선보이고 있는 광주 중흥동 프로젝트.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인권 평화 위한 시민프로그램 '울랄라...'

내달 1일 옛 전남도청 앞... 폐자재·공병 활용 조형물 제작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부지에서 철거한 폐자재와 코카콜라 병을 재활용해 조형물과 악기를 만드는 이색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문화중심도시조성 추진기획단이 진행하는 인권평화 도시를 위한 시민프로그램인 '울랄라 울랄라' 행사가 다음달 1일 옛 전남도청 별관 앞마당에서 열린다.

'울랄라...'는 옛 도청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각종 폐자재로 악기 조형물을 만들고, 플라스틱 용기로 직접 악기를 만

들어봄으로써 도시의 흔적과 삶의 기억을 되새기기 위한 행사다.

미술교육과가 주관하는 이 행사에서는 코카콜라, 요구르트 용기로 카주, 파랑, 하품 등 소형악기를 제작하고, 몸에서 나는 소리를 체험하는 몸벌레 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31일까지 신청서를 홈페이지(mujiagecity.com)에서 내려받아 작성, 제출하면 된다. 문의 062-223-7006.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株) 행복출판은**

광주시에 위치한 프라자 제1동  
전통으로 본가 건물 2만 5천여  
평에 국유 부지 1천여 평을 보유하며  
최고 수준의 책들을 개발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책에서 출판권을 확보하는  
국내 대표 출판정보회사입니다.

**회원수 1위 전국대표 출판정보회사**

100년 책출판 (062) 527-3388

**서두르십시오!** [평판 확보] [확실지급]

다금입지! 매면지 25000이 매대 아파트 확장공사

**동림동 다이빌딩 상가 임대!**

2007년 6월 10일 계약